

##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에 관한 고찰

이 자 형\*

### 1. 서 론

사람은 어느 시대, 또는 어느 문화나 사회에서 어떤 특정한 특성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양육된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신을 형성하고, 발달해 간다. 즉 발달 과정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일 중에 하나는 비슷한 발달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만 사람마다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사람의 성장 발달에서 나타나는 개인차의 근원을 어렸을 때의 경험에서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Gesell의 성숙 모형에서 제시하는, 발달은 정해진 '순서'로 진행하며 그 순서가 종의 생물적이고 진화적인 역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을 벗어난 견해이다.

즉 사람의 발달을 관계론적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양육하고-양육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파악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발달의 개체주의적 이해에 대해서 관계성의 입장을 강조한 Erikson은 발달을 모든 관계 속에 해소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발달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편으로는 관계 속에서의 발달로 보는 것이다. Freud의 이론이 발달을 성적 본능이라는 생물학적 요인과 결부시켜 설명한데 비해 Erikson은 개인이 속하는 공동체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Salkind, 1985).

사람의 아이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삶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양육자-부모가 필요하게 되고 환경-가정-이 형성되며, 가족구성원과 함께 성장해 가는 존재이다. 이때 부모는 자녀의 건강, 안녕 그리고 발달에 있어 핵심적 위치에 있으며, 초기에 역할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 부모-자녀(모-자)의 상호작용에는 돌봄, 보호, 성장발달을 위한 자극과 사회화 등을 포함한다(Stjernqvist, 1993).

부모-자녀의 관계는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사회적 관계이며,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는 출생 후 신생아가 가질 수 있는 최초의, 최고의 발달 가능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어렸을 때는 주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동들은 성장 발달해 가며, 많은 연구들이 아동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강전문가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부모로하여금 그들 아동의 발달적 요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중재전략을 가져야 한다 (Byrne, 1997).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을 상호작용의 기본개념과 Barnard의 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상호작용(interaction)

상호작용과 혼용되어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교호작용 :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작용(한글학회) 한 개 변수의 효과가 한 개 이상의 다른 변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뜻함(사회심리학)
- 교섭 :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어 의논함(한글학회)으로 기술되고 있다.

#### 상징적 상호작용론 :

G. H. Mead는 사회를 개인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 현상으로 보았다.

즉, 사회는 인간의 상호작용이 조직화되고 유형화된 것으로, 상호작용을 조직화하고 유지시키는 것은 정신과 자아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Mead는 어린이에게 있어서 이러한 자아가 발달하는 과정을 모방 단계(아주 어린아이는 가까운 주위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흉내를 낸다.), 유희 단계(상징을 사용하는 능력 즉 언어를 습득하게 되면 놀이를 하면서 특정한 타인의 역할을 취해본다: taking the role of the other), 조직화된 단계(타인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가정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안정된 자아관이 생긴다)로 분석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점은 자아를 주체적인 'I'와 대상적인 'me'의 두측면을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으로 파악한 것이다. 'me'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되는 것으로 '사회적 자아'이다. 요컨대 내면에 사회적 자아가 형성되면 개체는 자아 의식을 갖게 되며 이로부터 사회성이 발달하게 되고 일반화된 타인의 태도를 내면화하게 되면 충분한 사회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본질은 세 가지 전제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 : 사람은 사물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그 사물에 대해 행동한다.

둘 : 사물들의 의미는 사람이 그 동료들과 갖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연유된다.

셋 : 이러한 의미들은 사람이 사물들을 다루어 가면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처리되고 변형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의 인간관은 유기체가 자기 자신에게 지시하고 또 그러한 지시에 반응하므로써 자기 자신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사람은 반응하는 단순한 유기체가 아니라 그가 주목하는 것을 대상화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

---

를 그의 행동 지침에 바탕으로 하여 처리하는 유기체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고 상황을 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활동이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을 형성하는데 적극적인 요소로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으로서, 적절한 상호작용은 곧 적절한 기능으로 연결된다고 본다(박, 1982).

이상에서 제기된 견해를 종합해 볼 때 “ 발달 과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힘은 무엇일까 ” 하는 중요한 문제점은 여러 이론적 입장을 보완하는 상호작용론에 근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

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상호작용론은 사람의 생득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강조하므로써 사람이 환경과의 능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질적 양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며 발달해간다는 것이다.

개체의 생물학적인 변화를 정신분석에서는 성숙(maturation)이라 하며, 개체는 성숙에 의해 기능할 수 있는 준비(readiness)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실제 기능은 후천적인 경험과 학습에 의해 이루어지며, 각각의 발달단계에서 이러한 경험과 학습을 바탕으로 일정한 기능을 실현하는 것을 발달이라고 한다.

발달에 중요한 요인인 경험과 학습은 그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발달상 중요한 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사회적, 인적 환경이다. 특히 영아기에는 어머니 또는 양육자가 기본적인 환경이 되어 영아의 요구와 감정 표현의 의미를 읽고 충족시켜 주며 불안이나 분노를 중화시키고 안정감을 갖게 한다.

영아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달성해야 할 최초의 발달과제는 어머니에 대한 기본적 신뢰(basic trust)이다. 이것은 어머니가 한결같이 영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영아의 분노나 공격에 대해서 참고 견디며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영아는 어머니와 자신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어머니에게도 즐거움을 준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며, 이 자신감이 영아의 퍼스널리티의 핵심이 된다.

부모-자녀(모-영아)관계를 주로 하는 이 단계까지의 발달과제를 달성한 개체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이후의 인생에서는 치명적인 병적 장애에는 이르지 않는다.

## 3. Barnard의 Parent-child interaction model

Barnard는 그의 모델에서 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관련 요인으로 어머니-영아-환경의 삼호작용을 중시하고 모아상호작용을 결정하는 어머니, 환경, 영아의 특성과 이들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이 모델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능한 건강과 발달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가장 효과적인 시기에

주로 환경의 변화를 촉진하여 모아상호작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이 모델의 기본적 가정은 어머니와 영아가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Barnard가 제시한 아동 건강 사정 모델은 다음과 같다. 가장 작은 원은 영아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신체적 외모, 기질(temperament), 수유와 수면 양상, 자기조절(self regulation) 등을 나타낸다. 중간 크기의 원은 어머니/양육자(caregiver)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머니의 심리 사회적 자산, 신체적 정신적 건강, 삶의 변화, 영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자녀양육유형과 적응기술이다. 가장 큰 원은 영아와 어머니가 모두 포함되는 환경으로서 도와주는 사람의 여부, 적절한 환경(안전한 가정, 집, 음식), 지역사회의 도움 등과 같은 사회적 재정적 자원 등이 포함된다.

각 원이 겹쳐지는 부분은 각 영역이 상호작용 함을 의미하며 세 가지 원이 겹쳐지는 부분은 영아, 어머니,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특성 혹은 영아의 특성이 그들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영아가 정신 지체나 우울 등이 있을 때 아동에게 새로운 맛이나 냄새, 단어 등을 일상사에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단순히 보면, 어머니는 안전하고 연령에 적합한 장난감을 줌으로써 영아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반대로,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과보호적인 어머니도 환경을 중재하지만 영아의 학습하고자 하는 의도와 새로운 기술의 습득을 억제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환경은 모-영아 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 시끄럽고 산만한 텔레비전 프로그가 있는데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는가. 지나치게 반응적인 영아는 가족의 일상생활, 다른 자녀나 부부간에 여유가 없도록 영향을 끼친다. 세 영역을 고려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각각이 서로 다른 두 영역과 상호작용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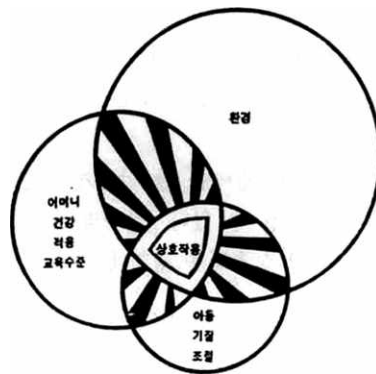


그림 1. 아동 건강 사정 모형

### A. 어머니와 영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특성

#### 1) 신호에 대한 민감성 (sensitivity to cues):

어린 아동은 언어가 아닌 행동적인 면 즉, 손짓, 몸짓, 얼굴표정과 목소리의 고저, 울음 등으로 신호를 보낸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영아의 신호를 정확하고 민감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상호작용 하는 중에 어머니는 영아를 안전하게 안고, 영아의 얼굴과 눈을 보면서 영아의 몸 움직임을 느낌으로 민감성을 나타낸다. 그러한 자세가 영아의 신호를 명확하게 읽고 반응할 수 있게 한다. 이 민감성은 영아의 행동 신호를 반복해서 받음으로써 증진될 수 있는 학습된 기술이다.

Ainsworth, Bell & Stayton(1974)은 어머니의 민감한 반응을 위한 4가지 기본요소로서 영아의 신호에 대한 인식, 영아의 신호에 대한 정확한 해석, 영아의 신호에 대한 적합한 반응, 영아의 신호에 대한 즉각적 반응을 제시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영아의 암시나 신호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필수 조건으로서 어머니 자신의 바램이나 기분에 따라서 혹은 환경에 따라서 영아의 신호를 왜곡하지 않고 영아의 감정이나 바램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정신분석학자와 행동주의학자들은 영아 발달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반응적인 환경이 영아의 암시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한 반응임을 확인하였고, 어머니의 민감성이란 어머니의 일반적인 성향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특성이 아니라 영아의 행동적인 면과 어머니의 반응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어머니의 민감성에 대한 사정은 영아반응과 무관하게 측정될 수 없다.

### 2) 보채는 것을 달랠 (alleviation of distress):

괴로워하는 영아를 달래고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영아는 괴로울 때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대부분 울음으로 표현함으로써 어머니는 영아의 울음을 통하여 영아의 고통을 인지하고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알아야 하고 이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영아를 효과적으로 달래기 위해서는 첫째, 영아의 신호를 인지하고 둘째, 얼러주거나 말하거나 꼬옥 안아 주는 것 같은 적절한 행동을 알아야 한다. 셋째는 지식에 근거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어머니의 반응 시기와 중재의 두 가지 요소가 영향을 준다. 영아의 신호에 빨리 반응하면 보통 영아는 쉽게 조용히 달래진다. 반면에 이러한 반응 양식에 대해 영아를 '음식받이'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다. 영아에게 반응적인 대화는 중요하며 그들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머니가 중재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아를 잘 달래게 되면 아동상태에 대한 인지 능력과 해결하는 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영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반응하고 행동을 수정하는 어머니의 능력은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에 의해 이루어진다.

### 3) 사회 정서적 발달을 위한 조성 (social-emotional growth fostering):

이 측면은 정의적인 영역을 포함하며 어머니가 영아에게 긍정적인 음성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다. 영아와 상호작용 하는 동안 어머니는 음조와 억양, 얼굴 표정, 접촉, 영아에 대해 말하고 영아의 자세를 취해주는 것을 반영한다. 또한 사회 정서적 발달을 촉진하는 어머니는 음성의 고저로 변화를 주고 노래를 하거나 흥얼거리고 무엇을 하는지 말해주거나 어떤 인성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영아에게 말하며 영아를 다독거리주고 달래거나 자극을 주기 위해 음성으로나 만져주고 움직여 준다.

영아와의 자세도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이 접촉할 수 있게 한다. 영아가 어머니를 향하고 어머니가 영아에게 반응하게 하는데 시각이 강력한 한 형태가 되며, 초기에 사회적 미소와 언어 발달

의 동기화가 된다.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위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시도하는 능력은 어머니의 광범위한 적응에 달려있다. 어머니는 애정을 가지고 영아와 놀이를 할 필요가 있고,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적절한 강화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머니는 영아의 발달 수준을 알아야 하고 그 수준에 따라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 4) 인지 발달을 위한 조성 (cognitive growth fostering):

어머니가 영아에게 학습 경험을 줌으로써 가능하다. 다른 볼거리, 소리와 경험을 영아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다. 어머니와 영아가 상호작용 하는 중에 양적 질적 언어로 나타나며, 탐색적인 행동을 장려하고 허용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언어구사가 영아에게는 풍부한 자원으로 자극이 된다. 영아가 어릴수록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에 더 반응한다. 어머니가 영아에게 말을 더 많이 하고 상호 대화를 시도한 경우 언어 발달이 진척되었다(Morisset, 1988).

어머니는 상호작용을 하는 중에 인지발달을 위하여 주위를 탐색하게 하고 격려시키며 주위환경과 물체를 만지고 보고 맛보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영아기 초기에는 환경을 만져보고 쳐다보고 훑는 것을 통하여 학습하게 된다.

영아의 현재 수준보다 바로 다음 단계의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인지발달이 용이해 진다. 영아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위한 능력은 대부분 어머니가 가진 지식과 기술에 달려 있다.

이상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영아의 신호에 반응하고 보낼 때 달래고, 영아가 잘 자랄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영아행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질병, 우울, 스트레스 혹은 위기로 인해 영아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거나, 영아가 보낼 때 달랠 수 없고, 영아발달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면 상호작용이 방해된다

### B.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아의 특성(영아의 책임)

#### 1) 신호의 명확성 (clarity of cues):

모 영아상호작용은 영아가 자신을 돌보는 어머니에게 신호를 보내고 어머니는 영아가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해석하여 상호 교환하게 되고, 이러한 동시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는 발달되어 간다. 영아는 어머니와의 동시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위해서 욕구에 대한 신호를 보내야만 하며, 이 신호는 어머니가 쉽게 해석하여 적절히 반응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 만약 영아가 모호한 신호를 보내면 어머니는 그 신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없으며 적응적 활동은 중단될 수 있고,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일 어머니와 영아간에 장애 요인이 있어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 못하거나 신호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면 상호작용과정이 파괴되며, 이것은 장애의 심리 병리적 상태와 관련이 있다(Brazelton, 1974).

## 2) 어머니에 대한 반응 (responsiveness to caregiver):

영아는 자신의 욕구를 어머니에게 전달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행동을 수정하게 하는 것처럼 자신도 어머니의 신호를 읽고 반응할 수 있어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영아가 어머니의 행동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머니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강화를 받지 못한 데 대한 반응으로 행동이 감소될 수 있다.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영아는 서로 상대의 행동을 통해 표현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상호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영아기 초기에는 어머니가 상호작용을 주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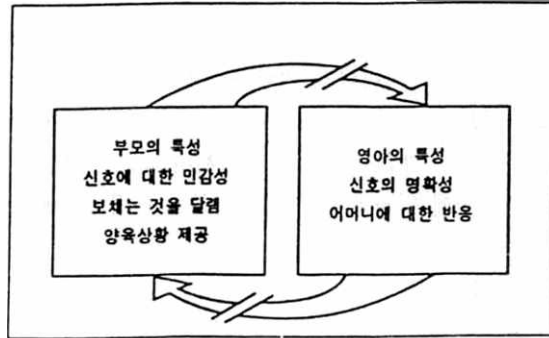


그림 2. Barnard Model

Barnard의 모델은 상호작용 하는 중에 어머니와 영아가 각각의 고유한 책임을 이행한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

모-영아의 상호작용은 결과적으로 어머니와 영아가 각각 서로에게 반응하고 행동하며 서로의 행동을 조절하고 수정하기 위해 적응한다. 위의 그림에서는 이런 적응을 어머니로부터 영아에게로, 영아로부터 어머니에게로의 움직임을 화살표로 보여준다. 이때 적응이 되면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

화살표가 차단되는 것은 상호작용 체계를 깨뜨리는 적응과정의 중단, 방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영아, 어머니, 환경으로부터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영아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 결여, 질병, 우울, 스트레스, 환경적 위기 등은 일반적으로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요인들은 어머니로 하여금 영아의 신호에 덜 민감하게 하고 영아의 고통을 경감시키지 못하며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위한 활동을 제공할 수 없게 한다.

한편 영아 측에서도 정확한 신호를 보내거나 어머니에게 반응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적응과정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미숙아, 약물에 노출된 영아, 신체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영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조건은 어머니나 영아가 상호작용 하는 상대방에게 무감동하거나 또는 낮은 수준의 에너지만을 전하게 된다. 따라서 적응적 상호작용이 덜 일어나게 된다.

Barnard(1976)는 모-영아상호작용 체계를 파트너간의 '대화, 서로 잘 어우러지는 왈츠 dialogue, mutually adaptive waltz'로 기술하였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왈츠를 추기 위해

영아와 어머니는 적절한 발달을 위한 어느 정도의 양적이고 질적인 자극이 주어져야 하고 대화도 어떤 특징이 있어야 한다.

첫째, 대화에 참여하는 각자는 다양한 행동 즉 말하기, 미소짓기, 신체의 움직임이 있어야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상호작용체계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우울한 어머니와 미숙한 영아는 상호작용 행동을 감소시키는 파트너의 예이다.

둘째, 파트너의 반응은 서로간에 일치(contingent)가 있어야 한다. 영아가 성숙됨에 따라 어머니는 일관되게 일치성을 가지고 영아에게 반응해야 한다.

셋째, 상호작용 내용은 긍정적인 감정, 언어 자극, 다양한 놀이 도구를 제공하는 등 풍부해야 한다. 따라서 영아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고 교육활동을 계획하여 실시해야 하며 일상생활을 통해 발달적으로 적절한 자극을 주고 놀이감을 주어야 한다.

넷째, 어머니와 영아간의 적응 양상은 영아의 발달에 따라 계속 변화되어야 한다.

어머니는 이렇게 영아가 거의 끊임없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므로 이 욕구를 충족시키고 때로는 독립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며,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에 관한 아동의 신호와 단서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영아를 위한 공간에서 쉬도록 하고 영아가 어머니(상호작용)를 원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III. 결 론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자녀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자녀 양육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는 그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한 개체의 발달이 가정에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초기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특히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연구해 왔다.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이론적 기초는 Freud의 정신분석이론을 위시하여 여러 이론들이 초기의 경험을 강조하고,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에서 초기의 부모-자녀관계가 후일 그 개체의 성격 및 행동뿐만 아니라 인지능력에도 영향 미침을 주장하였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아동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부모와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관계의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자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간호사는 아동과 최초의 관계를 맺는 전문인으로서, 아동과 그 부모의 발달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자녀관계 발달을 위한 간호사의 지식과 중재활동은 중요하다.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은 어머니와 영아가 부모자녀로서 관계가 성립되어 일상사의 자연적인 상황하에서 서로가 행동과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이다. 이것은 모아간의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아가 행동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끊임없이 상호 자극, 강화, 반응하는 역동적 조절과정이다. 모-영아상호작용의 주된 기능은 어머니가 영아의 암시, 신호에 반응하고 또한 영아가 어



머니에게 반응함으로써, 영아의 경험을 확장해 주고 영아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여 영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발달적으로 긍정적인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와 영아상호작용의 기초가 되는 것은 영아의 암시,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과 영아의 행동조직 능력이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영아는 출생과 더불어 감각적 자극에 반응하고 정보를 처리할 뿐 아니라 환경에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이때 어머니가 영아의 암시, 신호를 인지하여 해석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반영되어 어머니와 영아 상호작용 체계의 특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아와 부모의 관계는 결코 일방적일 수 없다.

적응적인 어머니와 영아의 영아상호작용은 상호성, 호혜성(reciprocity), 질(quality)적 양상으로 특징 지워지며, 어머니와 영아가 최적의 발달수준에 이르도록 증진시킨다. 한편 이러한 양상은 영아의 행동 신호에 대해 부모가 해석하기 어렵거나 영아가 부모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방해 받는다.

어머니의 민감성 (responsiveness or sensitivity)을 Ainsworth(1979)는 영아의 애착 신호를 어머니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석하여 적절하게 영아에게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어머니의 민감성이 효율적인 돌봄 활동 수행에 가장 중요하며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어머니로서의 행동을 적절히 수행하려면 아기의 신호를 정확하고 민감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민감성은 아기의 행동 신호를 반복해서 받음으로써 증진될 수 있는 학습된 기술이다.

한국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이(1987), 임 등(1994)의 몇몇 연구에서도 아동과 어머니의 특성이 애착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어머니의 적절한 접근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분만직후의 부모-자녀관계 형성에서부터 개체의 건강한 삶을 위한 간호중재 방안을 모색하여 아동과 부모발달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모성 및 아동간호학자들은 임상 및 지역사회에서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사정도구의 개발과 보완, 적용을 위한 연구와 이론개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특별히 모-영아상호작용이 방해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부모와 영아를 위한 간호 중재와 연구 검증이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박영신역(1982). 사회과학의 상징적 교섭론. 서울: 도서출판 까치.
- 이은숙(1987). 초산모의 어머니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수유시 모아상호작용 민감성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임숙빈, 주세진, 오민자, 권미경, 박은영(1994). 자폐적행동양상을 보이는 아동과 어머니간의 애착발달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3(1), 29-43.
- Ainsworth, M.(1979). Patterns of attachment. New york : Hasted Press.

- Ainsworth, M. and Bell, S. M.(1974).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K. J. Connolly and J. Bruner(Eds.), *The Growth of Competence*. New York: Academic Press.
- Barnard, K. E.(1976). *NCAST II learners resource manual*. Seattle: NCAST Publication.
- Barnard, K. E., Bee, H. L., and Hammond, M. A. (1984). Developmental changes in maternal interactions with term and preterm infant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7, 101-113.
- Brazelton, T., Koslowski, B. and Main, M.(1974). The origins of reciprocity: The early mother-infant interaction. In M. Lewis and L. Rosenblum(Eds.) *The Effect of the Infant on its Caregiver*.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Byrne M. W.(1997). Room-To-Grow: Responding To Community Cultural Needs to Support Positive Parenting. *Adv Prac Nurs Q*, 2(4), 27-34.
- Morisset, C. E.(1988). *It takes two to communicate: The role of interpersonal experience in child language acquisition*. Univ. of Washington.
- Salkind, N. J.(1985).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 2nd ed.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Stjernqvist, K.(1993). The Early Mother-Infant Interaction in the Highly Technological Care Environment. *Acta Paediatrica*, 82, 981-982.
- Sumner, G. and Spietz, A.(1994). *NCAST Caregiver/Parent-Child Interaction Feeding Manual*. Seattle: NCAST Publications, University of Washington.